

# 丹樞逍遙散加味方으로 호전된 갱년기 여성의 치험 1례

李貴熙·柳同烈\*

## A Case report of menopausal disorder treated with Danchisoyosan-gamibang

Lee Gui-Hee, Yoo Dong-Yul

Dept. of Ob & Gy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

**Purpose:** This paper is aim to report the effects of Danchisoyosan-gamibang (丹樞逍遙散加味方) on menopausal disorder

**Methods:** A Woman, 54 years old, who had a menopausal disorder, was enrolled in this study. She received herbal medicine for several months. During the treatments, we requested her to visit hospital every two weeks. If they could not come to hospital, we called her to take follow-up.

**Results:** After the treatments, symptoms of menopausal disorder were decreased.

**Conclusion:** This clinical case indicate that Danchisoyosan-gamibang is effective in treatment of the menopausal disorder progress and relapse of symptoms. More clinical data and studies are requested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relapsing cystitis.

**Key Words:** Danchisoyosan-gamibang, a menopausal disorder

### I. 緒論

갱년기는 여성의 생식능력이 감소되고 소실되는 전환시기, 즉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이행되는 기간으로 대개 46세에서 50세 사이이다. 이 시기에는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위화감이 발생하는데, 이를 갱년기 증후군이라 한다.<sup>1)</sup> 갱년기(更年期)란 폐경 전과 폐경기 동안, 그리고 폐경기 이후의 일정기간을 포함하는 폐경 전후기를 의미한다.<sup>2)</sup>

여성인구의 평균 30%이상이 갱년기 여성이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갱년기라고 하는 시기는 여성을 둘러싼 환경요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시기이다. 가족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건강에 대한 자신의 상실과 노화의 의식 등의 사회·심리적 변화는 갱년기의 정신증상(우울, 정서 불안정 등)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신체증상을 증폭시킨다고 본다.<sup>2)</sup>

여성의 평균수명이 80.8세<sup>3)</sup>로 늘어났으며, 한국 여성의 폐경연령이 49세<sup>4)</sup>가 되어, 폐경기 이후 여성의 관리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 교신저자 : 유동열 · E-mail : dlwndlf@hanmail.net

다. 양방에서는 갱년기 장애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주로 사용하며, 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섞어 복용하나, 10년 이상 호르몬 대체요법을 계속 하면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sup>5)</sup>는 보고가 있어, 한방에서의 관리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서양의학에서의 갱년기증후군과 같이 하나의 증후군으로 고찰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러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증상과 관련하여 ‘天癸過期婦之方論’, ‘老年經水復行(老年經斷復來)’, ‘崩漏(年老崩漏)’, ‘帶下候’, ‘臟躁’, ‘百合病’ 등이 대표적이다.<sup>2)</sup>

여성들은 폐경기의 전후가 되면 腎氣와 天癸, 그리고 衝任脈이 점차로 쇠잔해지고 고갈되면서 월경이 끊어지게 된다. 이것은 원래 여자의 정상적인 생리현상에 속한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체질이 허약하거나 환경적인 이유로 이러한 생리적 과도기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陰陽이 失調되고 臟腑의 기능이 문란해지면서 일련의 증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sup>6)</sup> 腎의 陰虛와 陽虛가 갱년기증후군의 기본적인 病因, 病機이지만 갱년기 증후군의 증상이 다양함으로 인하여 肝鬱, 心肝火旺, 心腎不交, 脾心兩虛, 血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病因, 病機들이다.<sup>2)</sup> 최근들어 갱년기 증상으로 인하여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도 대개 肝鬱이나 心肝火旺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논자는 최근 본원을 방문한 환자 중, 폐경 후 심한 肝氣鬱結 증상을 보이는 갱년기 증후군환자에게 丹樞逍遙散加味方을 투여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은 임상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 II. 證例

1. 환자명(성별/나이) : 김 OO (F/54)

2. 주소증

(1) 上熱感 :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 열이 한번 오를 때 심하게 달아올랐다가 서서히 꺼짐.

(2) 스트레스성 不眠 : 밤에 잠을 거의 못잔다. 자다가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한다. 밤에 남편이 TV를 크게 틀어놓는 탓도 있다고 함.

(3) 眼充血 : 항상 안구가 붉게 충혈되어 있음.

3. 부증상

(1) 심한 피로 :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가 심함.

(2) 허가 심하게 아림

4. 발병일 : 2008년 초

5. 과거력

B형 간염 보균상태. 2005년 말에 폐경하였다. 가끔 견통, 항배강 심함. 불면. 직업상 스트레스가 심하고 자주 긴장한다. 2002년 말에 물혹 발견. 현재도 검사는 하고 있으나 크게 변화는 없다. 2006년 10월 자궁근종을 발견하였으나 폐경 상태여서 그 이상 처치는 하지 않았다. 고혈압이 있으며 현재 고혈압약, 자궁근종약을 복용하고 있다.

6. 산과력 : 3-0-0-3

7. 월경력

2005년 말에 폐경. 폐경 직전까지 다량의 덩어리 출혈.

8. 가족력

(1) 어머니 : 간암사망

9. 사회력

현재 개국 약사로 재직중. 사회적, 종교적 활동이 매우 활발함.

10. 현병력

폐경 후 심한 상열감, 스트레스성 불면에 시달림. 원래 직업상 스트레스가 좀 있었으나 폐경 후에 더 심해지고 허가 많이 아릿해짐. 본인이 약사라 양방치료는 꽤 했으나 효과가 없어서 한의원에 내원.

11. 치료기간

2008년 5월 6일부터 약 2달정도

12. 초진소견

- (1) 피부색, 體格 : 면색은 약간 붉은빛. 작고 통통한 체형. 키 153cm, 체중 62kg. 하복부비만
- (2) 消化 : 팬찮음.
- (3) 食慾 : 보통. 종교상의 이유로 아침 단식.
- (4) 大便 : 변비경향
- (5) 小便 : 양이 적고, 진함. 과체중 고혈압
- (6) 口渴 : 혀가 아리고 갈갈함.
- (7) 寒熱 : 더위를 좀 더 타는 편.
- (8) 汗 : 잘 안 흘린다.
- (9) 睡眠 : 잠이 쉽게 들지 않는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 (10) 舌診 : 舌紅, 치흔이 있고 설 자체가 부어있음.
- (11) 腹診 : 심하 압통.

13. 투여처방

白朮 4g, 白芍藥 4g, 白茯苓 4g, 柴胡 4g, 當歸 6g, 麥門冬 4g, 牡丹皮 4g, 梔子 4g, 陳皮 4g, 玄蔘 4g, 蓮子肉 4g, 甘草 2g, 薄荷 2g, 생강 3편(丹梔逍遙散 원방에 當歸 6g증량, 玄蔘 蓮子肉 4g씩 가미)

14. 치료경과

기간	0주	2주	4주	6주	8주
	투여	투여	투여	투여	
上熱感	+++	++	+	±	-
不眠	+++	+++	++	+	±
眼充血	+++	+++	++	++	+
혀가 아립	+++	++	+	±	±
피로	+++	++	+	+	+

III. 考察

갱년기(Climacteric)란 폐경전과 폐경기 동안 그리고 폐경기 이후의 일정기간을 포함하는 폐경 전후기(perimenopausal phases)를 의미한다. 대개 46세에서 50세 사이이며, 이 시기에는 여성호

르몬이 감소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위화감이 발생하는데, 이를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한다.<sup>1, 2)</sup>

여성인구의 평균 30%이상이 갱년기 여성이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갱년기라고 하는 시기는 여성을 둘러싼 환경요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시기이다. 가족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건강에 대한 자신의 상실과 노화의 의식 등의 사회·심리적 변화는 갱년기의 정신증상(우울, 정서 불안정 등)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신체증상을 증폭시킨다고 본다.<sup>2)</sup> 갱년기 장애는 노화에 따른 생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갱년기 여성의 약 50%에서 증상이 뚜렷하고, 약 25%에서는 의학적 치료가 요구된다.<sup>7)</sup>

갱년기 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난소기능의 저하로 인한 호르몬의 결핍, 여성의 주변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여성의 성격에 따른 정신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들 세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sup>1)</sup> 초기에는 紅潮, 盜汗을 특징으로 하는 血管運動系 症狀과 정신집중력의 감소, 의욕상실, 불안정, 고집, 우울, 정신쇠약 및 감정의 변화 등의 情緒의 障礙, 성욕감퇴, 성교통 등의 性的 症狀, 무월경, 질과 요로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心血關係 症候群으로 動脈硬化症, 心筋梗塞症과 骨多孔症, 그리고 요통, 견갑통, 사지통 및 관절통,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 발생가능성이 증가한다.<sup>8, 9)</sup> 이 시기에는 사회 심리적 stress, 즉 가족관계의 문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건강에 대한 자신의 상실과 노화의 의식 등과 정신증상(우울, 초조감, 피로감, 정신적 불균형)의 요인이 심하게 작용한다. 갱년기증후군의 계통적인 대규모 조사(1, 000-3, 000 명 규모)에서도 폐경 직전의 정신·신경증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고 했고, 다른 보고서에서 갱년기에 특히 불안하거나 또는 쉽게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sup>10, 11)</sup>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처방이나 치료법으로 갱년기의 증상들을 모두 소실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된다.<sup>12)</sup>

현의학 역대문헌상에서 갱년기 장애에 대한 독립된 언급은 없으며, 上衝, 梅核氣, 婦人臟躁, 心下痞, 奔豚, 瘀血, 寒疝, 白合病, 天癸過期, 年老經水復行, 老年血崩, 經斷復來 등이 갱년기 장애와 유사한 병태이거나 연관된 병증이다.<sup>13)</sup> 『素問』〈上古天真論〉<sup>14)</sup>에 “女子 …… 五七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 七七任脈虛, 太衝脈衰少,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sup>14)</sup>라 하여, 폐경 전후에는 腎氣가 衰하고, 天癸가 竭하며, 衝任脈이 虛하여 生殖機能이 상실되고 臟腑의 기능이 쇠퇴하여 陰陽平衡이 失調되므로 갱년기 증후군은 腎虛가 그 病因病機의 기본이 된다.<sup>2)</sup>

현대에 와서는 갱년기장애를 更年期綜合症, 經斷前後症, 絕經期症候群이라 하여 그 원인을 腎陰虛, 腎陽虛, 陰虛陽亢, 心肝火旺, 心身不交, 脾腎陽虛, 肝鬱, 血瘀 등으로 보고, 腎陰虛證에 六味地黃湯, 腎陽虛證에 二仙湯 혹은 金匱腎氣丸, 陰虛陽亢證에 清眩平肝湯, 心肝火旺證에 清心圓, 心腎不交證에 六味地黃湯合黃連阿膠湯, 脾腎陽虛證에 溫養衝任方, 肝鬱證에 逍遙散, 血瘀證에 桂枝茯苓丸合血府逐瘀湯 등으로 치료하였으며, 이중 腎陰虛가 70~75%로 가장 많고 腎陽虛는 대략 15%를 점유하고 기타의 挾型이 15%정도에 이른다고 하였다.<sup>14)</sup>

본 증례의 환자는 54세의 약간 통통한 체격에 매우 활달하고 사교성이 좋은 여성이다. 2005년 초순부터 폐경의 징후가 있었으며, 2005년 말에 완전히 폐경되었다. 원래 B형 간염 보균자이고 어머니가 간암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평소 본인이 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02년에 간에 물혹을 발견하고 매년 검사는 하고 있으나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였다. 2006년에는 자궁근종도 발견되었으나 이미 폐경상태라서 그 이상의 처치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폐경 전부터 上熱感, 不眠, 疲勞, 眼充血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폐경 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동반한 不眠이 심해지고, 上熱感과 眼充血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2008년 5월 6일에 내원하였

다. 내원 당시 舌紅하고 치흔이 있었으며, 혀 자체가 많이 부어 있었고, 腹診상 심하압통이 심하게 나타났다. 과거력 및 가족력, 기타 문진상으로도 肝鬱이 심해 보였다. 침구치료도 같이 권하였으나 본인의 직업상 통원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침약치료만 시행하였으며, 2주에 1번은 반드시 내원하도록 요청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전화로 상담하였다.

丹梔逍遙散은 明代 薛己의 『內科摘要』에서 명명되었으며 일명 八味逍遙散(校注婦人良方)이라고도 하며 보편적으로 加味逍遙散이라고 한다. 구성약물로는 宋代 太平惠民和劑局方의 逍遙散 處方 즉 甘草, 當歸, 柴胡, 白朮, 白芍藥, 白茯苓에 牧丹皮, 梔子가 가미되어 있다. 牧丹皮, 梔子の 두 약물의 清熱涼血, 疏肝解鬱 효능을 주로 하여 牧丹皮는 鎮靜, 降血壓, 消炎, 抗菌 등의 작용을 가지고, 血管擴張, 行血促進하고, 山梔子도 鎮靜, 降血壓, 解熱, 消炎, 抗菌작용을 갖고 있다.<sup>15)</sup> 疏肝解鬱, 清熱涼血, 健脾補血의 효능이 있어 寒熱往來, 胸煩心悸, 易怒, 躁鬱, 不眠, 眩暈, 頭痛, 盜汗 등 情志過度로 인한 제반 심인성 질환에 다용되기도 한다.<sup>16)</sup>

본 증례의 환자는 기본적으로 肝에 문제가 있다는 점, 폐경 전에도 血虛증상이 있었고, 피로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肝鬱氣滯, 肝脾血虛로 변증하여 丹梔逍遙散에 補血작용이 있는 當歸<sup>17)</sup>를 증량하고, 滋陰降火의 효능이 있는 玄參<sup>17)</sup>과 益腎固精, 養心安神시키는 蓮子肉<sup>17)</sup>을 가미하였다.

총 4회 투약하였으며 上熱感에서 가장 뚜렷한 호전을 보였고, 不眠과 혀가 아린 증상이 호전을, 疲勞와 眼充血이 약간의 호전을 보였다.

#### IV. 結論

肝病의 과거력이 있고, 上熱感 및 스트레스성 및 不眠이 심한 환자의 폐경 후 갱년기 증상을 肝鬱氣滯, 肝脾血虛로 변증하고, 丹梔逍遙散 加味方을 투여한 결과 뚜렷한 증상의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578-589, 623-624

1. 대한 산부인과 학회 : 부인과학, 서울, 칼빈 서적, 1997, 309-332, 716-733
2. 한의부인과학교재편집위원회 : 韓方婦人科學, 서울, 정담, 2002, 221-248
3.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4. 강길전 : 여성생식의학, 서울, 대관출판사, 1998,
5. 구희준 외 : “Kupperman's index로 평가된 갱년기 증후군 치험 2례”, 대한한방부인과 학회지, 21권 3호, 2008, 257-268
6. 肖淑春 : 東醫臨床婦人科學, 서울, 법인문화사, 1999, 149-153
7. 이윤호 외 : “갱년기 증후군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8권 1호, 1991, 27-36
8. 대한폐경학회 : 폐경기 여성의 관리, 서울, 군자출판사, 2001, 1-2, 29
9. 노영철 : “갱년기” 대한산부회지, 21권 10호, 1978, 829-833
10. 김현우 : 성인 및 중년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81-84
11. 민성길 : 최신정신의학(증보판), 서울, 일조각, 1987, 177
12. 신경숙 외 : “丹樞逍遙散이 갱년기 장애에 미치는 효능에 관한 임상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6권 4호, 2003, 77-82
13. 양성우 외 : “갱년기장애의 한의학적 고찰”, 경희의학, 17권 1호, 2001, 49-57
14. 이경우 역 : 編注譯解 皇帝內經素問 1, 서울, 여강출판사, 2000, 31
15. 김재형 외 : “丹樞逍遙散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소 논문집, 7권 2호, 1999, 531-551
16. 심문기 외 : “丹樞逍遙散의 항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實驗的 研究”,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권 2호, 1998, 278-299
17. 전국한 의과대학 본초학교수 : 본초학, 서울, 도서출판 영림사, 192-193, 531-533,